

Latin American Culture

문화예술

팔코: 사회적 행위자이자 중재자의 모범이 되는 예술가

홀리오 세사르 아바드 비달

팔코(Falco Fernando Falconi)는 에콰도르의 걸출한 예술가로, 여러 분야를 섭렵하는 유형의 작품을 생산할 뿐 아니라 문화적 작업과¹⁾ 교육을²⁾ 병행하며 예술행동주의(artivism)를 실천하는 작가이다. 본명은 페르난도 팔코니로, 쿠엔카에서 태어나 2008년부터 키토에 거주하고 있으며, 에콰도르 쿠엔카 대학에서 시각 예술 학사 과정을 마치고 마드리드 에우로페아 대학에서 예술과 신기술 분야의 석사 학위를 받았다.

유형적인 성격의 작품에서도 팔코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반영한다.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지적 도발을 통해 공적 공간에 개입하고자 하는 팔코의 소명의식은 그의 초기작에서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이 작업은 폭력사태를 주로 다루는 선정주의적 일간지 『엑스트라』(Extra)를 통해서 독자들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는 것이었다.³⁾ 「스크램블 텍스트」

1) 2011년부터 팔코니는 2008년에 창설되어 최근 쿠엔카 비엔날레 기간 동안 토론 포럼, 청년 예술가 기숙사, 포트폴리오 전시와 아틀리에 등의 활동을 펼치는 현대 예술 자율 플랫폼 쿠아르토 아파르테(Cuarto Aparte)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그는 「결정적이고 협동적인 방식과 교점. 에콰도르 예술 활동에서의 무대, 각본, 특징에 대한 단상 (Nodos y modos críticos y colaborativos. Apuntes sobre gestos, escenas y escenarios en la producción artística ecuatoriana)」이라는 수필에서 에콰도르의 공동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Julio César Abad Vidal (ed.): *Pensar el arte. Actas del Coloquio sobre arte contemporáneo en Ecuador*. Cuenca: Universidad de Cuenca, 2014, pp. 41-55.)

2) 2008년부터 팔코니는 키토의 산 프란시스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동대학의 현대예술 전공 학업 코디네이터였다.

3) 이 프로젝트는 팔코가 과야킬의 현대예술과 고고학 박물관(MAAC)에서 주관한 “공적 공간 속 예술 확장 프로젝트”, 아타케 데 알라스(Ataque de Alas)에 참여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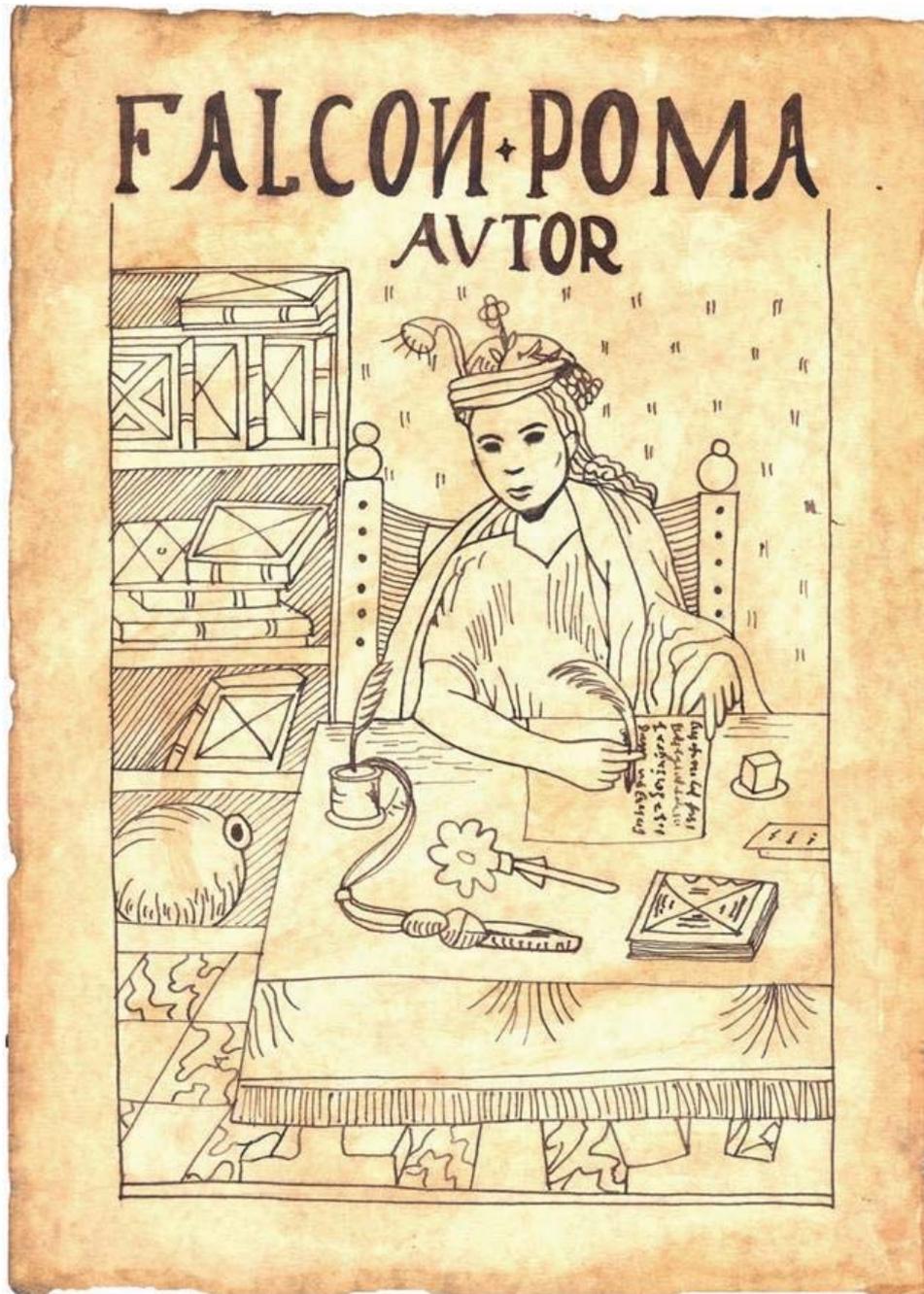
(Textículos Revueltos)라고 명명한 이 작품은 신문 편집자의 협조를 받아 2002년 6월 매주 목요일마다(6일, 13일, 20일, 27일, 총 4일간) 20세기 에콰도르 작가 중 가장 뛰어난 인물이면서 동시에 불행한 죽음을 맞은 예술가인 세사르 다빌라 안드라데(César Dávila Andrade, 1918~1967)의 작품 두 편과 파블로 팔라시오(Pablo Palacio, 1904~1947)의 작품 두 편을 마치 실제 사건인 것처럼 신문에 삽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6월 6일에 출간된 「발에 차여 죽은 사나이」(Un hombre muerto a puntapiés)는 20세기 초에 활동한 에콰도르 작가 파블로 팔라시오의 동명 단편에 해당한다. 6월 13일자에 실린 「괴물의 죽음」(La muerte del monstruo)은 세사르 다빌라 안드라데의 동명 작품의 변형본이다.⁴⁾ 6월 20일에 발표된 거짓 기사 「해부」(La autopsia)는 세사르 다빌라 안드라데의 「해부」에 기반한 반면, 6월 27일에 나온 「식인종」(El antropófago)”은 파블로 팔라시오의 동명 작품에 해당한다. 앞의 두 기사에서는 파코 살라사르(Paco Salazar)의 사진이 첨부되었으며, 다른 두 기사의 사진은 디에고 시푸엔테스(Diego Cifuentes)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매우 뛰어난 방식으로 일간지의 레이아웃을 모방했다. 게다가 팔코는 원문의 세부사항을 요약하고 가벼운 수정을 거쳐 작품을 전반적으로 인용하며 기사를 작성했다. 마지막으로 2002년 6월 12일 금요일에는 한 페이지 전체에 걸쳐 ‘관련 해명’을 실어, 앞의 기사가 에콰도르 작가의 글을 각색한 것임을 밝혔다. 기사를 읽자마자 알 수 있는 작가들의 소설을 신문에 삽입함



엑스트라 신문에 실린 2002년도 작품 「스크램블 텍스트」(출처: elextra.co)

4) 팔코의 변형본은 에콰도르 예술계의 흥미로운 제언들 가운데 세사르 다빌라 안드라데의 작품 세계를 다루는 일례로, “에콰도르 시청각물과 예술에 나타나는 세사르 다빌라 안드라데(Presencia de César Dávila Andrade en las artes y el audiovisual de Ecuador)”글이 이에 관해 분석하였다. (Cuenca, Universidad de Cuenca, 2017, tomo II, pp. 221-236). 다음의 주소에서 전문을 읽을 수 있다.

<https://juliocesarabadvidal.wordpress.com/2017/04/03/presencia-de-cesar-davila-andrade-en-las-artes-y-el-audiovisual-de-ecuador/>.



2004년 작품 < 팔콘 포마 아바토르 > (20.4 x 15cm)

으로써 팔코는 선정주의적 신문의 본질과 이러한 언론이 다루는 사건과 이미지의 폭력성에 대해 환기하고 있으며, 선정적이고 불건전한 출판물이 쏟아내는 정보들의 진실성, 더 나아가 사회 대중매체의 윤리의식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2004년 팔코는 회화 시리즈 작업에 착수했다. 여전히 이 작업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현재까지는 2013년에 작업한 차기작밖에 발표되지 않았다). 이 작품은 과만 포마의 『새로운 연대기와 좋은 정부』(Nueva Crónica y Buen Gobierno)의 삽화를 활용했고, 아메리카 정복에 관한 자료를 현재적으로 해석하는 데 큰 예술적 기여를 한다고 평가받고 있다.⁵⁾ 팔코는 정복 과정에서의 약탈과 복음 사업 간의 긴장을 유려하게 전한 작품인 『돈 펠리페 과만 포마 데 아얄라가 쓴 첫 번째 새로운 연대기와 좋은 정부』(El Primer Nueva Cronica i Buen gobierno compuesto por don Phelipe Guaman Poma de Aiala)를 매우 영리하게 이용한다. 원주민 출신인 과만 포마는 문헌 작성과 삽화 완성에 약 20년을 쏟아 이 작품을 1615년에야 완성했고 펠리페 3세에게 바쳤다. 하지만 다른 사료들이 대부분 잊혔듯이 과만 포마의 글 역시 1908년에 발견되기 전까지 빛을 보지 못했다.⁶⁾ 『새로운 연대기와 좋은 정부』는 저자가 손수 종이를 가득 채워 그린 그림 397점에 총 1190쪽이나 되는 방대한 양으로 타에 비할 데 없는 의미를 지닌 작품이다. 과만 포마는 아메리카 땅에서 황실의 대표자가 행한 악행으로 인해 스페인의 아메리카 식민지가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군주에게 알리기 위해 그 글을 작성했다. 팔코는 자신의 작품에서 스스로를 페르난도

5)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현대 에콰도르 예술에서 나타나는 과만 포마(La apropiación de Guamán Poma en el arte ecuatoriano contemporáneo)”에서 더 자세히 다루었다(ABAD VIDAL, Julio César (ed.): Pensar el arte. Actas del Coloquio sobre arte contemporáneo en Ecuador. Cuenca, Universidad de Cuenca, 2014, pp. 85-99). 전문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juliocesarabadvidal.wordpress.com/2015/07/06/pensar-el-arte-actas-del-coloquio-sobre-arte-contemporaneo-en-ecuador/>.

6) 발견에는 리차드 피츠만(Richard Pietschmann)의 공이 컸다. 그는 코펜하겐에 있는 덴마크 황실 도서관에서 이 책을 발견했다. 하지만 공식 출간이 늦어져서 파리에서 폴 리벳(Paul Rivet)이 『삽화를 곁들인 페루 고문서』(Codex Péruvien illustré)라는 부제를 붙여 사본을 1936년에 발표했다. 덴마크 황실 도서관은 과만 포마의 책 전권에 대한 디지털사본을 다음의 링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http://www.kb.dk/permalink/2006/poma/info/es/frontpage.htm>.

팔콘 포마 데 토메밤바(Fernando Falcon Poma de Tomebamba)로 소개한다.⁷⁾

2004년 과만 포마 작품의 차용 작업을 마무리하는 〈9쪽, 저자 팔콘 포마〉(Foja 9, Falcon Poma avtor)에서 팔코는 자신의 초상을 그렸다. 하지만 과만 포마가 표지에 그린 자신의 초상화에서는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3세가 성부 앞에서 기도하듯이 과만 포마도 무릎을 꿇고 성부에게 경의를 표하지만, 이와 달리, 팔콘은 과만 포마가 814[828]쪽에서 그린 유언을 작성하는 서기의 모습을 차용했다.⁸⁾ 〈9쪽, 저자 팔콘 포마〉는 원화의 가구와 도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팔코의 날카로운 얼굴과 긴 머리카락을 담아냈다. 이 자화상은 저자가 과거를 포섭하는 행위를 통해 과만 포마와의 유대를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을 강하게 드러낸다. 그림뿐 아니라 그의 머리 위로 자리한 〈1쪽, 저자 팔콘 포마〉(Foja 1, Falcon Poma, autor)라는 제목 역시 과만 포마의 이름 안에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요소를 삽입한 것이다. 팔코니의 예명 팔코와 과만의 이름은 의미적인 면에서 매(halcón)라는 동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면에서도 모방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 형식적인 모방은 무엇보다도 종이를 다루는 방식에서 볼 수 있다. 팔코는 과만 포마가 사용한 양피지의 질감과 색채의 특징을 유사하게 모방한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고어체에 통달했으며 원서의 필체도 복사해내고 있다. 팔코는 과만 포마의 작품을 총체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민중에게서 주권을 빼앗아 지배세력에게 봉헌하는 식의 체제로는 부패, 외세의 간섭, 민주주의의 환상과 같은 악이 만연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 아메리카 국민의 진흥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만 포마의 작품이 권능 있는 수신자에게까지 도달하지 못하여 그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과 같은 수순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팔코가 고발하는 악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7) 토메밤바는 카냐리족의 국가 과폰델리그(Guapondelig)가 있었던 도시이다. 잉카 제국의 침략 이후 잉카 북부의 행정 수도가 된다. 스페인 정복 이후에는 스페인인이 이 지역에 산타 아나 데 로스 콤포트로 리오스 데 쿠엔카(Santa Ana de los Cuatro Ríos de Cuenca)시(市)를 건설한다.

8) 작성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돈 페드로의 유언을 작성합니다.”(과만 포마, 814 [828]).



2008년 작품 〈칸테라의 성녀, 성노동자, 예술가, 시인의 수호성녀〉

신랄하고도 대담한 팔코의 작품에 대해 책임감 있는 수신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때로 팔코의 작품은 관계와 매개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작품에 각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특징은 2008년 제6회 도시 예술 국제 회합 알 취리



검은 호수(출처: 로드리고 에템)

히(al zur-ich)에서 전개된 작품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이 바로 〈칸테라의 성녀, 성노동자, 예술가, 시인의 수호성녀〉(Nuestra Patrona de la Cantera, Patrona de las trabajadoras sexuales, los artistas y los poetas)로, 작가는 이를 통해 사회적인 의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중에게 동화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주었다. 팔코는 에콰도르 키토 산 로케 구(區) 칸테라 지역에 있는 업소 엘 다누비오 아술(El Danubio Azul)의 성노동자 16명과 함께 작업했다. 그는 우선 성노동자의 수호 성녀에 대한 기도와 성상을 만들 작업실을 꾸렸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성노동자들과 논의하면서 성상이 표현해야 할 도해적 모티프를 수집했다. 이러한 지침을 마련한 후, 팔코는 다비드 산티얀(David Santillán, 1967년생)에게 이에 맞는 그림을 업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준비한 석판 위에 그려달라고 의뢰했다. 성상이 완성된 후 작업에 참가했던 성노동자들은 스스로 글을 쓰는 데 참가했던 기도문을 성상에 바치고, 성상의 사진으로 제작해 뒷면에는 기도문을 새긴 우표는 수호성녀의 제단에 놓여 고객과 공동제작자들에게 나눠주었다. 팔코의 작업은 사회의 변두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의 상황을 진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적 감수성을 드러내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우선 팔코는 그녀들을 예술적 관계 맺기의 과정 속에 참가시키고자 했다. 첫 회동에서 그는 성노동자들이 수호성녀를 필요로 하며, 가톨릭적인 전통에 따라 그들이 의지할 수 있을 성상이 필요함을 인지했다. 성상파괴의 시대에 팔코의 공동창작 과정은 비록 이단적일지라도 현대 에콰도르 사회에는 성상이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점차적으로 에콰도르의 약자집단과의 작업을 통해서 사회적 중재를 하는 과정과 퍼포먼스는 팔코의 작품에서 더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그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우리는 팔코가 2010년 12월 6일에 발표한 퍼포먼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그의 활동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작품이 되었으며, 로드리고 에템(Rodrigo Etem)이 사진을 찍고, 후안 파블로 오르도녜스(Juan Pablo Ordóñez)가 영상으로 제작했다. 이 퍼포먼스의 제목은 〈검은 호수〉(Laguna Negra)로, 나포 강변에 거주하는 나포-루나 부족의 작은 카누, 키야를 타고 에콰도르 아마존 고지대 수쿰비오스주의 인시네룩스사(社)에서 석유 저수지를 건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연을 이용하던 전통적인 방식(원주민의 항해)와 석유 회사 간의 마찰은 진보에 대한 특정한 생각이 지역적인 수준(채굴주의적 에콰도르)에서와 세계적인 수준에서 야기하는 결과에 대해 숙고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기능한다. 그리고 실제로도 2012년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이 회사는 슈슈핀디 마을을 위협한 화재를 야기하기도 했다.

라틴아메리카의 다양한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팔코의 작품은 그보다는 가장 인접한 주변의 사회문화적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파노라마를 직설적으로 제시한다. 그의 작품은 신랄하지만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에콰도르 현대 예술의 지평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 수많은 소외로 침식된 세상에서 그가 비판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관과 시장에 아첨하거나 기계적인 논리를 따르는 식의 중우정치를 피해야 할 것이다.

[정민정 옮김]

홀리오 세사르 아비드 비달 — 마드리드 자치대학교(UAM) 문학박사. 현재는 에콰도르 쿠엔카대학교 인문대학 연구교수

정민정 — 고려대학교 대학원